

코로나19 극복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공단, 소득 감소한 경우 3~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 확대 적용 보험료 체납시 3개월분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의 가능했으나, 이번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

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존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에 의 처리 예정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의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

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의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6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융·복합 및 벤처나라 상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확대

조달청, 신산업 분야 상품 판로 확대 적극 나서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신산업 분야 융·복합 상품 및 벤처나라 상품의 다수공급계약 추진 요건을 완화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벤처나라 상품 중 기술 혁신성이 높고 범용성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 거래 실적의 기업이 2개사 이상만 있어도 종합쇼핑몰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연간 3천만 원 이상 거래실적의 기업이 3개사 이상이고,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과 시험기준이 있어야 다수공급계약 추진이 가능했다.

벤처나라 상품 판로지원 정책도 다양해진다.

조달청은 상품 지정부터 등록, 구매, 홍보까지 벤처나라 운영 전 단계에 걸쳐 개선할 계획이다.

전담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벤처나라 등록 기업들은 강화된 조달업무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추천 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한 유대

를 강화해 벤처나라 상품 추천을 활성화하고 벤처·창업 기업이 판매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받는다.

또한, 등록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 아이디어 공모에 따라 벤처형조직으로 선정된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차장 직속으로 신설해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구매를 전담해오고 있다.

조달청의 이번 판로지원 확대 결정으로 그동안 품명 등록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던 융·복합 상품에 대한 등록 문제가 해결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준까지 새로 마련돼, 융·복합 상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백명기 조달청 차장은 "융·복합 상품과 벤처나라 상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까지 확대 진출하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더 따뜻한 정기적금'

전북은행, 내달 1일부터 1만명 선착순 상품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웅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4월 1일부터 선착순 1만명에게 '더 따뜻한 정기적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판적금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전북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아파트관리비 또는 도시가스 자동이체가 정상등록된 고객이다.

월불입액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1년인 상품으로 금리는 최대 연5.10%(우대금리 연3.80% 포함)이며, 판매최수 1만좌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bank.co.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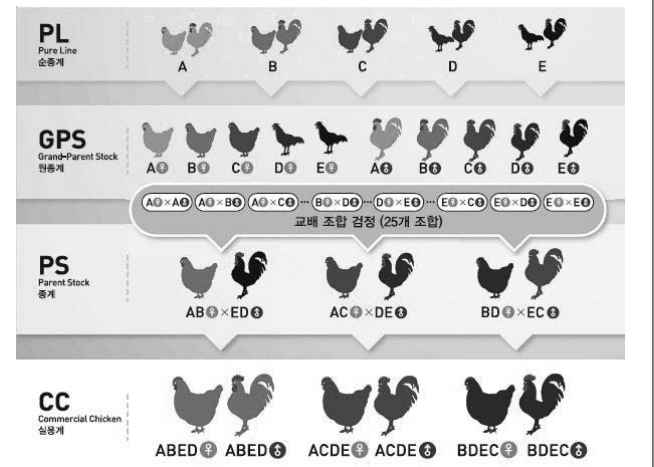
토종닭 개량 속도 빨라진다

농진청, 육종체계 구축 결과 순계 체중 유전능력 개량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품종 시드프로젝트(이하 GSP)의 일환으로 토종 씨닭 육종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한 결과, 토종닭 개량을 위해 보존하고 있는 순계(Pure Line, 純系)의 체중 유전능력이 개량됐다고 30일 밝혔다.

순계는 닭의 육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으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순계를 교배해 원종계(GPS)를 생산하고 원종계간 교배로 만들어진 씨닭(PS, 종계)을 교배해 실용계를 생산한다. 실용계는 닭고기와 달걀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계의 닭을 말하며, 3~4종의 순계를 이용해 생산된다.



품종시드프로젝트 종계 개발 체계도

가장 상위에 위치한 순계의 경제 형질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개체 단위로 수집한 능력검정 자료와 이들 개체의 아비와 어미 정보를 알 수 있는 혈통 정보가 필요하다.

개체의 부모를 알기 위해서 인공 수정을 시행하고 수집한 종란과 부화기록부에 아비 번호와 어미 번호를 기록한 다음 암수가 구분되도록 부화시킨다. 부화된 병아리 낱개에는 개체표식(악대)을 부착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약 1만

2,000마리에 대한 혈통 정보와 8주령 체중 측정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혈통정보와 체중자료를 이용해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계를 선발한 후, 근친이 되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높이도록 교배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한 ㈜한협원종에서 토종닭 육종체계를 적용해 본 결과 한협진산 F와 한협진산 F'의 8주령 체중 유전 능력이 매년 각각 29.1g, 23.4g 개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토종닭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품종과 형질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8주령, 10주령, 12주령 체중 능력 검정과 산란능력 검정을 완료하고 정보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계획이다.

조용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육종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능력 개량의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토종닭 육종연구 기반 확립을 통해 국내 토종닭 육종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 기자

고급기술 보유 초기창업기업 성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3년 이내 업체 대상 아이템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창업3년 이내)의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아이템사업화자금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사업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아이템 검증 및 시제품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규모는 전국 초기창업패키지지원기관 40개기관에서 740개사를 모집하며, 이중 전북도는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에서 총 57개사를 모집한다. 접수는 4월 6일 14시 ~ 4월 23일 18시 까지로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모집 및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 기자

4월 전북 중기 경기전망지수 78.2로 4개월 연속 하락세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수출 부진 증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FI)는 1.2p 하락한 78.2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중첩되면서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4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제조업(87.1)은 4.2p 상승, 비제조업은 8.0p 하락한 67.0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월

(91.7)이후 25.0p 하락한 66.7로 전망됐고, 서비스업도 67.0으로 전월보다 7.0p 동반 하락했다.

내수판매(79.8→75.4)와 수출전망(95.8→70.0), 영업이익(77.4→73.4)전망은 전월대비 하락했고, 여객열차 이용수준(95.2→100.4) 전망 역시 5.2p 상승해 전 항목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4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여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6.7%), '인건비 상승'(34.1%), '원자재 가격상승'(23.0%), '자금조달 곤란'(17.5%), '인력확보곤란'(17.5%), '업체간 과당경쟁'(15.9%)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 기자

LX공사, 남부시장과 자매결연...매달 날짜 지정 소비 촉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30일 전주남부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1시장-1기관 자매결연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LX는 코로나19 진정 이후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

정해 필요물품의 구매와 단체 회식, 재능 기부 등 이용 촉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최창학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X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9.1조" |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발표

"7.1조는 원포인트 추경" 1인 가구 40만 · 2인 60만 3인 80만 · 4인 100만원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사업 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며 서울시의 경우 차등 협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

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 계층 546만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 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30%

를 석 달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석 달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 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 개소(96.8%)가 대상"이라며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 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예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증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납부예외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것"이라며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 노동자 8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